

## WEBVTT

00:00:11.261 --> 00:00:13.116

안녕하세요?  
장동준 쌤입니다.

00:00:13.216 --> 00:00:16.165

이번 시간 장동준의 왕초보  
만화 국어 문법,

00:00:16.265 --> 00:00:18.771  
생강 국어 문법 7강을 들어갑니다.

00:00:18.871 --> 00:00:22.859  
7강은 국어의 구조 마지막  
파트이고 담화입니다.

00:00:22.959 --> 00:00:25.506  
여태까지는 제가 음운부터 시작해서

00:00:25.606 --> 00:00:30.753  
음운, 단어, 문장까지는 조금  
더 암기를 강조했습니다.

00:00:30.853 --> 00:00:37.419  
물론 이해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,  
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라.

00:00:37.519 --> 00:00:40.516  
특히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 
풀 수가 없잖아요?

00:00:40.616 --> 00:00:47.054  
그런데 담화는 암기보다 이해가  
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.

00:00:47.154 --> 00:00:50.945  
그래서 지금부터는 강하게  
이거 외워라, 저거 외워라.

00:00:51.045 --> 00:00:53.436  
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 
거의 없을 겁니다.

00:00:53.536 --> 00:00:56.919  
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.

00:00:57.019 --> 00:01:00.329  
담화라는 거는 의사소통과도  
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

00:01:00.429 --> 00:01:03.021  
사실 담화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.

00:01:03.121 --> 00:01:07.821  
오히려 앞에 음운과 단어, 문장  
이 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.

00:01:07.921 --> 00:01:09.494  
난이도만 따지면.

00:01:09.594 --> 00:01:13.199

그런데 이 담화를 어려워하는  
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.

00:01:13.299 --> 00:01:16.749

평소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 
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

00:01:16.849 --> 00:01:20.327

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 
친구들이 간혹 있죠.

00:01:20.427 --> 00:01:24.332

그런 사람들은 담화가  
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.

00:01:24.432 --> 00:01:28.420

그래서 이번 시간에 담화의  
필수 개념을 익히고요.

00:01:28.520 --> 00:01:31.643

이해를 하면서 강의를  
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.

00:01:31.743 --> 00:01:37.862

일단 우리가 담화에서 배워야  
되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.

00:01:37.962 --> 00:01:41.556

담화의 개념, 그다음에 담화의  
기능, 그다음에 담화의 의미.

00:01:41.656 --> 00:01:46.598

그다음에 담화라는 것이  
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.

00:01:46.698 --> 00:01:50.312

물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 
딱 고정된 거는 아니죠.

00:01:50.412 --> 00:01:52.627

말하는 사람이 듣는  
사람이 될 수도 있고

00:01:52.727 --> 00:01:54.745

듣는 사람이 말하는  
사람이 될 수도 있죠.

00:01:54.845 --> 00:01:57.764

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 
왔다갔다 하는 것인데.

00:01:57.864 --> 00:02:00.910

이 사이에 왔다갔다  
하는 대화들이 발화다.

00:02:01.010 --> 00:02:04.571

발화들의 모임이 또  
담화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02:04.671 --> 00:02:08.979

그러면 일단 담화의 개념부터  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09.079 --> 00:02:12.224

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.

00:02:12.324 --> 00:02:15.657

교재 125쪽 잠깐 볼까요?

00:02:15.757 --> 00:02:19.691

도입 부분에 제가 살짝  
깔아놓은 이야기가 있어요.

00:02:19.791 --> 00:02:21.646

이거를 우리가 읽고 가야 돼요.

00:02:21.746 --> 00:02:23.502

이거를 안 읽고 바로  
뒤에 나와 있는

00:02:23.602 --> 00:02:27.557

담화의 개념과 기능부터  
들어가면 안 돼요.

00:02:27.657 --> 00:02:30.569

아빠가 딸에게 지금 뭐하니?

00:02:30.669 --> 00:02:33.657

이 말의 의미는 상황에  
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00:02:33.757 --> 00:02:38.309

지금 뭐하니? 라는 말.

00:02:38.409 --> 00:02:44.311

우리 친구들이 방에 혼자 있다가 이런  
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.

00:02:44.411 --> 00:02:51.275

이게 하나의 의미로  
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.

00:02:51.375 --> 00:02:53.830

그래서 보면 딸이 학교  
숙제를 하고 있다면

00:02:53.930 --> 00:02:55.902

아빠의 말은 단순한  
질문이 될 수 있지만

00:02:56.002 --> 00:02:58.289

말 그대로 지금 뭐하는 거냐.

00:02:58.389 --> 00:03:01.361

그런데 만약에 게임에  
열중하고 있다.

00:03:01.461 --> 00:03:04.692

물론 여기서 게임이라는 것을  
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00:03:04.792 --> 00:03:07.114

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 
게임하는 거를

00:03:07.214 --> 00:03:09.528

긍정적으로 생각하는  
부모님도 많았어요.

00:03:09.628 --> 00:03:11.809

그런데 게임을 싫어하는 부모님이라면

00:03:11.909 --> 00:03:13.745

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다,  
공부를 안 하고.

00:03:13.845 --> 00:03:15.379

그러면 지금 뭐하니?

00:03:15.479 --> 00:03:18.224

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질문이  
아니게 되는 거예요.

00:03:18.324 --> 00:03:20.190

그러니까 지금 뭐하니?

00:03:20.290 --> 00:03:23.900

이런 말이 단순한  
질문일 수도 있어요.

00:03:24.000 --> 00:03:25.985

어떤 상황에서는,

00:03:26.085 --> 00:03:28.458

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

00:03:28.558 --> 00:03:35.039

어떤 상황에서는 질문이 아니고  
질책이 될 수도 있다.

00:03:35.139 --> 00:03:37.242

이게 외우는 게 아니예요.

00:03:37.342 --> 00:03:41.481

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 
표현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

00:03:41.581 --> 00:03:44.858

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 
외워서 접근하는 게 아니예요.

00:03:44.958 --> 00:03:47.661

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,

00:03:47.761 --> 00:03:56.265

대화 상황 흐름, 장면을 이해하는  
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00:03:56.365 --> 00:03:58.322

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

00:03:58.422 --> 00:04:00.451

아빠의 말은 더 다양한  
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.

00:04:00.551 --> 00:04:03.704

예를 들어서 아빠도 컴퓨터를  
쓰자는 제안이 될 수도 있고.

00:04:03.804 --> 00:04:06.095

지금 뭐하니? 아빠도 좀 쓰자.

00:04:06.195 --> 00:04:09.024

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도  
있고 심부름해달라는 요청.

00:04:09.124 --> 00:04:13.014

지금 뭐하니? 시간 좀  
있으면 심부름 좀 해줄래?

00:04:13.114 --> 00:04:17.157

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 
거일 수도 있고.

00:04:17.257 --> 00:04:19.803

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 
밥을 먹으러 나오라는

00:04:19.903 --> 00:04:21.149

명령의 기능일 수도 있다.

00:04:21.249 --> 00:04:24.537

밥을 먹어야 되는  
상황에서 지금 뭐하니?

00:04:24.637 --> 00:04:27.479

이것은 지금 하던 거  
멈추고 밥 먹으러 와라.

00:04:27.579 --> 00:04:30.990

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 
수도 있다는 거죠.

00:04:31.090 --> 00:04:37.320

그래서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 
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

00:04:37.420 --> 00:04:40.336

다음 장 126쪽.

00:04:40.436 --> 00:04:43.547

우리가 주고 받는 말은 일정한  
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

00:04:43.647 --> 00:04:46.028

제대로 이해되지가 않는다.

00:04:46.128 --> 00:04:48.205

그래서 이번 시간은 문장들이  
일정한 상황 속에서

00:04:48.305 --> 00:04:54.794

의사소통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기  
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

00:04:54.894 --> 00:04:56.421  
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.

00:04:56.521 --> 00:05:00.523  
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하는  
이와 듣는 이가 있는데

00:05:00.623 --> 00:05:04.911  
일반적 상황, 이거.

00:05:05.011 --> 00:05:09.148  
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 
이 왔다갔다하는 말의

00:05:09.248 --> 00:05:12.166  
진짜 의도를 알아낼 수  
있다는 이야기죠.

00:05:12.266 --> 00:05:17.431  
그러면 지금부터 담화의 개념, 기능,  
의미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5:17.531 --> 00:05:21.222  
담화의 개념은 뭐냐?

00:05:21.322 --> 00:05:27.081  
제가 따로 빼서 보여드리려고  
하는 부분이 있어요.

00:05:27.181 --> 00:05:30.218  
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거예요.

00:05:30.318 --> 00:05:32.787  
이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고.

00:05:32.887 --> 00:05:37.280  
다음 부분을 보면,

00:05:37.380 --> 00:05:40.873  
상황, 상황이라는 것은  
말하는 이와 듣는 이.

00:05:40.973 --> 00:05:43.863  
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처한  
시간적, 공간적 상황.

00:05:43.963 --> 00:05:45.572  
즉 장면을 포함한다.

00:05:45.672 --> 00:05:48.319  
이 장면을 우리가  
이해해야 된다고 했을 때

00:05:48.419 --> 00:05:52.200  
담화라는 것은, 그 전에  
발화를 먼저 봐야죠.

00:05:52.300 --> 00:05:55.556

일정한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 
실현된 말을 발화라고 하고.

00:05:55.656 --> 00:05:58.866

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 
바로 입으로 나오는 순간,

00:05:58.966 --> 00:06:03.335

발화가 되고 이러한 발화들이  
모여서 담화가 되는 거예요.

00:06:03.435 --> 00:06:04.863

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.

00:06:04.963 --> 00:06:09.986

이러한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 
통일체를 담화라고 합니다.

00:06:10.086 --> 00:06:13.548

이렇게 126쪽에 되어 있어요.

00:06:13.648 --> 00:06:19.080

그리고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가  
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.

00:06:19.180 --> 00:06:21.702

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 
보면 됩니다.

00:06:21.802 --> 00:06:27.484

여기 그림이 있지만 머릿속에  
뭔가 생각을 해요.

00:06:27.584 --> 00:06:30.907

어떤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.

00:06:31.007 --> 00:06:36.541

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,  
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

00:06:36.641 --> 00:06:38.071

그게 발화이고.

00:06:38.171 --> 00:06:40.349

이런 것들이 많다.

00:06:40.449 --> 00:06:44.901

발화1이 있을 수 있고 발화2가 있을  
수도 있고 발화3이 있을 수도 있어요.

00:06:45.001 --> 00:06:48.122

이런 것들 2개 이상의  
발화가 모였을 때

00:06:48.222 --> 00:06:53.628

우리는 이런 것들을  
담화라고 한다는 이야기죠.

00:06:53.728 --> 00:06:57.884

하나 이상의 발화가 모여서  
담화가 이루어진다.

00:06:57.984 --> 00:07:01.988

따라서 담화의 기능은 담화를  
구성하고 있는 발화의 의미와

00:07:02.088 --> 00:07:05.892

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 
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07:05.992 --> 00:07:11.586

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 
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.

00:07:11.686 --> 00:07:15.062

이처럼 발화는 상황에 따라 선언,  
명령, 요청, 질문, 제안,

00:07:15.162 --> 00:07:17.547

약속, 경고, 축하, 위로,  
협박, 비난 많죠?

00:07:17.647 --> 00:07:19.233

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.

00:07:19.333 --> 00:07:23.545

이런 다양한 행위와 관련된 기능을  
수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.

00:07:23.645 --> 00:07:27.315

여기 127쪽에 보면  
이런 부분이 있죠.

00:07:27.415 --> 00:07:30.971

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,  
이런 말이 있어요.

00:07:44.652 --> 00:07:48.955

이것도 보면 127쪽  
첫 번째 컷에 있는 거죠.

00:07:49.055 --> 00:07:52.457

이 문장의 의미 그대로 개회를  
선언하는 기능일 수도 있고.

00:07:52.557 --> 00:07:55.571

웅성거리는 학생들에게 조용히할  
것을 명령하는 기능.

00:07:55.671 --> 00:07:57.470

지금 회의 시작할  
거니까 조용히 해!

00:07:57.570 --> 00:07:59.466

이런 명령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.

00:07:59.566 --> 00:08:03.084

담임 선생님께 저희 회의할 거니까  
잠깐 밖으로 나가주세요.

00:08:03.184 --> 00:08:05.608

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.

00:08:05.708 --> 00:08:07.361  
요청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.

00:08:07.461 --> 00:08:12.160  
그래서 발화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 
역할,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.

00:08:12.260 --> 00:08:18.832  
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 
잠깐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

00:08:18.932 --> 00:08:25.816  
이거 말고 제가 따로  
정리를 해드린다면,

00:08:25.916 --> 00:08:32.822  
발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 
표현하는 것을 직접적인 것과

00:08:32.922 --> 00:08:35.208  
간접적인 것으로 일단  
나눌 수가 있어요.

00:08:35.308 --> 00:08:39.162  
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EBS  
교재에도 많이 나오구요.

00:08:39.262 --> 00:08:41.134  
문제집에도 많이 나옵니다.

00:08:41.234 --> 00:08:46.116  
직접 발화와 간접  
발화라는 개념을 볼게요.

00:08:52.502 --> 00:08:59.803  
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,  
이 개념을 확인을 해볼 건데.

00:08:59.903 --> 00:09:02.981  
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?  
127쪽에 나와 있죠.

00:09:03.081 --> 00:09:04.646  
창문 좀 닫아라.

00:09:04.746 --> 00:09:07.473  
창문을 닫아줄 수 있어?  
이렇게 되어 있어요.

00:09:07.573 --> 00:09:12.163  
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여기서  
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.

00:09:12.263 --> 00:09:18.839  
직접 발화는 여기 지금 나와  
있는 것처럼 창문 좀 닫아라.

00:09:29.061 --> 00:09:32.103  
그다음에 간접 발화의 예가  
뭐라고 되어 있어요?

00:09:32.203 --> 00:09:35.398

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?

00:09:35.498 --> 00:09:38.341

지금 우리 이거 외우는  
게 아니에요.

00:09:38.441 --> 00:09:40.206

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.

00:09:40.306 --> 00:09:47.158

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?

00:09:47.258 --> 00:09:50.645

그런데 둘 다 기능을  
보면 명령입니다.

00:09:50.745 --> 00:09:55.603

어쨌든 창문을 닫으라고  
하는 명령입니다.

00:09:55.703 --> 00:10:01.142

그런데 이거는 걸으로도 명령이  
확실히 드러나 있죠.

00:10:01.242 --> 00:10:05.396

아라, 라고 했기 때문에 아라  
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.

00:10:05.496 --> 00:10:09.921

그래서 걸으로도 딱 명령이고  
실제 기능도 명령입니다.

00:10:10.021 --> 00:10:15.459

결과 속이 다 똑같이,  
명령으로 똑같다면

00:10:15.559 --> 00:10:17.342

이거는 직접 발화라고 보는 거예요.

00:10:17.442 --> 00:10:20.118

첫 번째 발화는 명령형  
어미를 사용하여

00:10:20.218 --> 00:10:23.901

명령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직접  
발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.

00:10:24.001 --> 00:10:28.989

그다음에 간접 발화는 걸로도  
드러나는 표현은 명령이 아니다.

00:10:29.089 --> 00:10:31.147

이거 뭐예요?

00:10:31.247 --> 00:10:32.656

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?

00:10:32.756 --> 00:10:35.056

이거는 의문형 어미를

사용하고 있죠.

00:10:35.156 --> 00:10:40.142  
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걸음으로는  
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

00:10:40.242 --> 00:10:42.757  
결국 이 안에 명령의  
기능을 포함하고 있죠.

00:10:42.857 --> 00:10:48.476  
그래서 명령의 기능을 살짝  
의문형으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.

00:10:48.576 --> 00:10:49.930  
그러니까 간접적으로.

00:10:50.030 --> 00:10:54.827  
직접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고  
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다.

00:10:54.927 --> 00:10:58.378  
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 
직접 발화가 좋아요,

00:10:58.478 --> 00:10:59.878  
간접 발화가 좋아요?

00:10:59.978 --> 00:11:01.447  
간접 발화가 좋죠.

00:11:01.547 --> 00:11:04.756  
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 
것보다는 이게 기분이 덜 나쁘죠.

00:11:04.856 --> 00:11:07.672  
물론 이것을 원하는  
사람도 있겠지만.

00:11:07.772 --> 00:11:12.461  
그렇잖아요, 세상에는 다양한  
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.

00:11:12.561 --> 00:11:19.142  
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간결하게  
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

00:11:19.242 --> 00:11:22.231  
아니면 돌려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 
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.

00:11:22.331 --> 00:11:25.254  
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

00:11:25.354 --> 00:11:27.811  
간접 발화를 조금 더 사람들이  
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.

00:11:27.911 --> 00:11:30.639  
경향성으로만 따지면.

00:11:30.739 --> 00:11:33.708

그래서 직접 발화와  
간접 발화를 구별하는

00:11:33.808 --> 00:11:36.757

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 
출제가 되기 때문에

00:11:36.857 --> 00:11:41.007

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 
잘 봐야 되겠습니다.

00:11:41.107 --> 00:11:42.715

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?

00:11:42.815 --> 00:11:45.855

간접적인 발화는 공손한 표현을  
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.

00:11:45.955 --> 00:11:49.551

특히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 
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
00:11:49.651 --> 00:11:51.404

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

00:11:51.504 --> 00:11:55.737

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 
공손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

00:11:55.837 --> 00:11:57.268

제가 써봤습니다.

00:11:57.368 --> 00:12:02.132

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

00:12:02.232 --> 00:12:04.745

어때요? 이번 시간은 어렵지 않죠?

00:12:04.845 --> 00:12:08.264

지난 시간까지는 정말  
파도치듯이 갔다가

00:12:08.364 --> 00:12:12.665

살짝 쉬어가는 느낌, 그런  
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

00:12:12.765 --> 00:12:15.160

담화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.

00:12:15.260 --> 00:12:21.302

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 
지식적인 게 필요한 부분인데요.

00:12:21.402 --> 00:12:24.405

지시 표현, 높임 표현, 생략  
표현 등이 나타나는 의미는

00:12:24.505 --> 00:12:25.695

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
00:12:25.795 --> 00:12:29.811

그래서 지금부터 담화의  
의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

00:12:29.911 --> 00:12:34.776

이런 지시 표현과 높임  
표현과 생략 표현이

00:12:34.876 --> 00:12:39.973

담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 
요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

00:12:40.073 --> 00:12:45.110

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의 지시  
표현, 높임 표현, 생략 표현이

00:12:45.210 --> 00:12:48.653

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.

00:12:48.753 --> 00:12:55.871

제가 이 장면을 캡처를  
해왔는데 지시 표현부터 보면.

00:13:01.674 --> 00:13:06.635

이거는 거기 지금 나와 있죠?  
129쪽에 나와 있습니다.

00:13:06.735 --> 00:13:10.528

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대화를 나누는  
시간적, 공간적 장면이 없으면

00:13:10.628 --> 00:13:12.014

발화의 의미를 정확히  
이해할 수 없다.

00:13:12.114 --> 00:13:14.656

그래서 이것, 그것, 저것과  
같은 지시 대명사들은

00:13:14.756 --> 00:13:18.629

어떤 장면에서 사용되는 예에  
따라서 달리 선택됩니다.

00:13:18.729 --> 00:13:22.337

지금부터 우리가 지시  
표현에서 알아야 되는 거.

00:13:22.437 --> 00:13:28.679

이, 그, 저의 개념을  
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.

00:13:28.779 --> 00:13:34.634

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 
맞춰서 볼 거예요.

00:13:34.734 --> 00:13:42.144

일단 이, 그, 저 중에 하나만  
이해해도 다 이해가 돼요, 여기서.

00:13:42.244 --> 00:13:47.707

이것, 그것, 저것.

00:13:47.807 --> 00:13:50.604  
그러면 한번 볼까요?

00:13:50.704 --> 00:13:54.317  
이것은 말하는 이에게 좀 더  
가까운 대상을 이야기할 때

00:13:54.417 --> 00:13:55.587  
이것이라고 합니다.

00:13:55.687 --> 00:13:56.802  
어떤 물건이 있어요.

00:13:56.902 --> 00:13:59.795  
잘 보세요, 이해하는 겁니다.

00:13:59.895 --> 00:14:02.806  
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

00:14:02.906 --> 00:14:04.141  
듣는 사람이 있습니다.

00:14:04.241 --> 00:14:07.570  
이럴 때 말하는 사람이  
너 이거 본 적 있어?

00:14:07.670 --> 00:14:11.587  
이것을 책이라고 할까요?

00:14:14.920 --> 00:14:19.323  
그러면 말하는 애가  
너 이 책 본 적 있어?

00:14:19.423 --> 00:14:20.663  
이렇게 이야기하죠.

00:14:20.763 --> 00:14:22.304  
너 이것 본 적 있어?

00:14:22.404 --> 00:14:27.784  
이것, 이 사물이 말하는  
이에게 가깝기 때문에.

00:14:27.884 --> 00:14:31.517  
너 그 책 본 적 있어?  
혹은 그것 본 적 있어?

00:14:31.617 --> 00:14:33.981  
혹은 저 책 본 적 있어?  
저것 본 적 있어?

00:14:34.081 --> 00:14:34.956  
이렇게 안 합니다.

00:14:35.056 --> 00:14:37.874  
이 책, 화자에게 가까운  
대상을 이야기할 때

00:14:37.974 --> 00:14:40.575  
이,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.

00:14:40.675 --> 00:14:42.679  
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.

00:14:42.779 --> 00:14:53.583  
그것은 말하는 이에게는 멀지만  
듣는 이에게는 가까운 대상.

00:14:53.683 --> 00:14:54.833  
그러면 어떻게 돼요?

00:14:54.933 --> 00:14:55.937  
말하는 이가 이야기하죠.

00:14:56.037 --> 00:14:59.370  
너 그 책 뭐야? 이런 식으로.

00:14:59.470 --> 00:15:02.831  
너 그 책 본 적 있어? 이런  
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

00:15:02.931 --> 00:15:09.248  
그라는 것은 듣는 이에게  
가까울 때 그를 쓴다는 거죠.

00:15:09.348 --> 00:15:16.401  
그렇다면 저것은 말하는  
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서

00:15:16.501 --> 00:15:19.603  
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 
가리킬 때 각각 사용합니다.

00:15:19.703 --> 00:15:22.478  
그래서 말하는 이가  
있고 듣는 이가 있는데

00:15:22.578 --> 00:15:25.407  
저기 멀리 있는 쪽에 책이  
꽂혀져 있단 말이에요.

00:15:25.507 --> 00:15:26.666  
그러면 어떻게 해요?

00:15:26.766 --> 00:15:28.246  
너 이 책 본 적 있어? 아니죠.

00:15:28.346 --> 00:15:30.008  
그 책 본 적 있어? 아니죠.

00:15:30.108 --> 00:15:33.875  
저 책 본 적 있어?  
저를 쓴단 말이에요.

00:15:33.975 --> 00:15:37.946  
저 혹은 저것, 이런 식으로.

00:15:38.046 --> 00:15:43.488  
그래서 이, 그, 저의 공간  
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

00:15:43.588 --> 00:15:45.510  
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.

00:15:45.610 --> 00:15:47.060  
이해되지요?

00:15:47.160 --> 00:15:48.517  
그렇게 보면 되고.

00:15:48.617 --> 00:15:54.093  
그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5:54.193 --> 00:16:04.309  
이거는 뭐냐면 높임 표현.

00:16:04.409 --> 00:16:07.625  
이거는 생략 표현에 해당되는 건데

00:16:07.725 --> 00:16:11.579  
그전에 높임 표현은 우리가 다  
문법 요소에서 배웠던 거니까

00:16:11.679 --> 00:16:13.636  
높임 표현은 말하는  
이가 담화에 등장하는

00:16:13.736 --> 00:16:16.442  
여러 인물 사이에 상하 관계를  
고려해서 사용하는 거죠.

00:16:16.542 --> 00:16:18.614  
그래서 높임 표현은  
상하 관계에 따라서

00:16:18.714 --> 00:16:20.687  
나보다 높으면 높임 표현 쓰고

00:16:20.787 --> 00:16:24.079  
아니면 낮춤을 써라,  
이런 이야기에요.

00:16:24.179 --> 00:16:26.300  
그래서 높임 표현은  
높임법에 관련된 거니까

00:16:26.400 --> 00:16:28.483  
그렇게 깊게 볼 필요가 없고요.

00:16:28.583 --> 00:16:30.629  
생략 표현, 이게 중요한 건데.

00:16:30.729 --> 00:16:36.345  
예를 들어서 효민이의  
행방을 묻는 질문.

00:16:36.445 --> 00:16:37.751  
애가 효민이에요.

00:16:37.851 --> 00:16:40.997  
효민이 못 봤니? 라고 했을  
때 애가 물음표를 하죠.

00:16:41.097 --> 00:16:45.827  
저는 효민이를 못 봤는데요, 처럼  
대답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?

00:16:45.927 --> 00:16:55.656  
애가 모르니까 못 봤는데요?

00:16:55.756 --> 00:16:59.652  
이렇게 생략해서 이야기해도,

00:16:59.752 --> 00:17:01.151  
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?

00:17:01.251 --> 00:17:03.684  
제대로 하려면 저는  
효민이를 못 봤는데요?

00:17:03.784 --> 00:17:04.978  
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,

00:17:05.078 --> 00:17:08.495  
저는 효민이를 빼고  
그냥 이것만 이야기해도

00:17:08.595 --> 00:17:12.542  
이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 
이야기예요, 생략 표현.

00:17:12.642 --> 00:17:16.380  
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 
생략하고 못 봤는데요?

00:17:16.480 --> 00:17:19.079  
이 정도로 대답하는 것이 더  
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.

00:17:19.179 --> 00:17:24.289  
130쪽에 제가 부가  
설명을 해놨죠.

00:17:24.389 --> 00:17:26.832  
이와 같은 생략 표현이 가능한 것은

00:17:26.932 --> 00:17:29.653  
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 
장면이나 맥락에 도움을 받아서

00:17:29.753 --> 00:17:33.712  
충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 
말하는 이가 판단했기 때문에

00:17:33.812 --> 00:17:37.168  
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만  
생략해서 이야기를 해도

00:17:37.268 --> 00:17:41.710  
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.

00:17:41.810 --> 00:17:46.837  
그래서 이렇게 담화에

대해서 살펴봤습니다.

00:17:46.937 --> 00:17:50.838

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 
내용은 다 끝났어요.

00:17:50.938 --> 00:17:55.945

이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 
풀어봐야 되겠는데,

00:17:56.045 --> 00:18:00.847

사실 담화라는 거는 외워야  
되는 부분이 없고

00:18:00.947 --> 00:18:03.478

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

00:18:03.578 --> 00:18:08.493

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데  
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해요.

00:18:08.593 --> 00:18:11.882

어떤 거를 볼 거냐면,

00:18:11.982 --> 00:18:20.081

3번 문제, 의미심장한  
문제가 3번 문제예요.

00:18:20.181 --> 00:18:23.788

3번에 보면 (가)에 들어갈  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8:23.888 --> 00:18:30.664

탐구 목표, 탐구 자료,  
탐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.

00:18:30.764 --> 00:18:33.899

탐구 자료에 밑줄 쳐  
있는 부분을 보면

00:18:33.999 --> 00:18:38.720

김서방, 그이, 아가씨, 고모,  
고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
00:18:38.820 --> 00:18:40.678

일단 정답 몇 번이었어요?

00:18:40.778 --> 00:18:42.380

2번이었죠.

00:18:42.480 --> 00:18:45.087

그과 ㄷ을 보면 청자는  
같지만 화자가 달라

00:18:45.187 --> 00:18:46.740

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 
표현되고 있다.

00:18:46.840 --> 00:18:52.355

이거는 우리가 외웠던 문법 개념을  
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.

00:18:52.455 --> 00:18:55.538  
1번부터 확인해볼까요?

00:18:55.638 --> 00:18:57.994  
ㄱ과 ㄴ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

00:18:58.094 --> 00:18:59.997  
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 
다르게 표현되고 있다.

00:19:00.097 --> 00:19:05.011  
1번에 ㄱ, 김서방은 할머니가  
고모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고.

00:19:05.111 --> 00:19:08.790  
ㄴ에 그이는 고모가 할머니에게  
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죠.

00:19:08.890 --> 00:19:13.157  
그러니까 지금 1번은 적절한  
거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19:13.257 --> 00:19:14.721  
그러니까 포인트.

00:19:14.821 --> 00:19:18.023  
이거를 보면서 대화의  
흐름을 보면서,

00:19:18.123 --> 00:19:24.456  
김서방과 그이는 같은 인물이다.

00:19:24.556 --> 00:19:28.112  
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대화 상황만  
파악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

00:19:28.212 --> 00:19:30.866  
이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.

00:19:30.966 --> 00:19:34.145  
대화의 흐름을 잡지를 못해요.

00:19:34.245 --> 00:19:39.059  
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 
연습해야 돼요.

00:19:39.159 --> 00:19:45.476  
그다음에 2번, 이게 정답이었죠?

00:19:45.576 --> 00:19:49.552  
ㄱ과 ㄴ을 보면 청자는  
같지만 화자가 달라

00:19:49.652 --> 00:19:51.198  
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 
표현되고 있다.

00:19:51.298 --> 00:20:03.399  
ㄱ에 김서방은 화자인  
할머니가 청자인 고모에게

00:20:03.499 --> 00:20:07.240

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죠?  
일단 여기까지 오케이?

00:20:07.340 --> 00:20:15.316

ㄷ에 아가씨는 엄마가  
고모를 가리키는 말인데,

00:20:15.416 --> 00:20:19.208

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 
화자는 할머니와 엄마예요.

00:20:19.308 --> 00:20:21.978

그런데 ㄱ은  
고모부를 가리키는 거고

00:20:22.078 --> 00:20:23.624

ㄷ은 고모를 가리키는 거니까

00:20:23.724 --> 00:20:26.058

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 
표현된 거는 아니죠.

00:20:26.158 --> 00:20:27.113

서로 다른 인물이에요.

00:20:27.213 --> 00:20:29.196

그러니까 ㄱ과 ㄷ은  
다른 인물입니다.

00:20:29.296 --> 00:20:31.325

다시 한 번 보면,

00:20:31.425 --> 00:20:36.266

대화 상황을 보면  
ㄱ은 고모부고요.

00:20:36.366 --> 00:20:43.797

ㄷ은 고모예요.

00:20:43.897 --> 00:20:49.329

같은 인물 아니잖아요,  
서로 다른 인물이잖아요.

00:20:49.429 --> 00:20:52.636

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 
2번이 틀린 거예요.

00:20:52.736 --> 00:20:55.417

2번에서 분명히 동일한 인물이  
다르게 표현된다고 했는데

00:20:55.517 --> 00:20:59.198

다른 인물이거든요, 동일한  
인물이 아니거든요.

00:20:59.298 --> 00:21:02.174

그다음에 3번 보면,

00:21:02.274 --> 00:21:04.445

그과 口을 보면 화자도  
다르고 청자도 달라

00:21:04.545 --> 00:21:06.418

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 
표현되고 있다.

00:21:06.518 --> 00:21:12.089

ㄴ의 그이는 고모가 할머니에게  
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고

00:21:12.189 --> 00:21:17.393

그러니까 ㄴ은 김서방,  
아까 1번이랑 똑같죠?

00:21:17.493 --> 00:21:21.387

3번에 ㄴ의 김서방은 할머니가  
고모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고

00:21:21.487 --> 00:21:27.391

ㄹ에 고모부는 고모가 은미에게  
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죠.

00:21:27.491 --> 00:21:29.192

그래서 맞고.

00:21:29.292 --> 00:21:34.301

그다음에 4번 ㄴ에 그이는 고모가  
할머니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고

00:21:34.401 --> 00:21:38.481

ㄹ의 고모부는 고모가 은미에게  
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죠.

00:21:38.581 --> 00:21:42.905

그다음에 5번 ㄷ에 아가씨는 엄마가  
고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고.

00:21:43.005 --> 00:21:47.063

ㄷ에 고모는 은미가 고모를  
가리키는 말이에요.

00:21:47.163 --> 00:21:49.966

그러니까 화자가 달라서  
동일한 청자가

00:21:50.066 --> 00:21:52.095

다르게 표현됐다는  
것을 알 수 있죠.

00:21:52.195 --> 00:21:55.847

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 
잘 보는 것이

00:21:55.947 --> 00:21:59.907

무엇보다 중요했던  
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.

00:22:00.007 --> 00:22:08.239

그다음에 4번 문제가  
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.

00:22:08.339 --> 00:22:12.458  
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어요.

00:22:15.290 --> 00:22:20.220  
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상황을  
주고 구별할 수 있느냐.

00:22:20.320 --> 00:22:27.894  
한마디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,

00:22:27.994 --> 00:22:31.746  
길지만 써볼게요,  
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.

00:22:31.846 --> 00:22:44.952  
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별할  
수 있는지 묻는 문제.

00:22:48.157 --> 00:22:52.779  
포인트는 구별할 수 있느냐.

00:22:52.879 --> 00:22:54.052  
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

00:22:54.152 --> 00:22:58.632  
직접 발화는 겉으로 보이는  
거랑 실제 의도가 일치해요.

00:22:58.732 --> 00:23:01.396  
그런데 간접 발화는  
겉으로 표현하는 거와

00:23:01.496 --> 00:23:04.486  
실제 의도가 불일치합니다.

00:23:04.586 --> 00:23:06.508  
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.

00:23:06.608 --> 00:23:08.503  
보니까 어떻습니까?

00:23:08.603 --> 00:23:13.153  
1번부터 순서대로 쪽 가고  
정답을 이야기할게요.

00:23:13.253 --> 00:23:15.014  
1번에 보면,

00:23:15.114 --> 00:23:17.463  
아 목마르다, 이거는 뭘니까?

00:23:17.563 --> 00:23:21.885  
귀가한 후에 누나에게 물을 달라는 의도를  
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.

00:23:21.985 --> 00:23:23.982  
귀가하는 누나에게 아 목마르다.

00:23:24.082 --> 00:23:25.288  
이게 무슨 이야기예요?

00:23:25.388 --> 00:23:28.214  
누나에게 목마르다고 하는 거는 내가  
목마른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.

00:23:28.314 --> 00:23:31.371  
목마르다고 하니까 누나가 센스 있게  
물 여기 있어, 이렇게 하죠.

00:23:31.471 --> 00:23:36.321  
목마르다는 거는 지금 물 달라는  
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.

00:23:36.421 --> 00:23:39.009  
그다음 2번 같은 경우를 보면,

00:23:39.109 --> 00:23:42.121  
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 
학생에게 창문이 열렸네.

00:23:42.221 --> 00:23:44.678  
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이에요.

00:23:44.778 --> 00:23:46.776  
이거를 또 간과하면  
문제 틀리는 겁니다.

00:23:46.876 --> 00:23:49.542  
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

00:23:49.642 --> 00:23:52.190  
선생님이 창문이 열렸네,  
라고 하는 것은

00:23:52.290 --> 00:23:56.390  
창문이 열렸다는 정보를  
이야기한 게 아니에요.

00:23:56.490 --> 00:24:01.337  
밖에서 찬바람이 많이 불어오는데

00:24:01.437 --> 00:24:02.818  
선생님께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

00:24:02.918 --> 00:24:05.188  
창문이 열렸네? 라고 했는데

00:24:05.288 --> 00:24:08.680  
학생이 그러네요? 창문이 열렸네요?

00:24:08.780 --> 00:24:10.995  
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.

00:24:11.095 --> 00:24:13.937  
창문이 열렸네, 라고 한  
것은 창문 좀 닫아줘.

00:24:14.037 --> 00:24:16.073  
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거잖아요.

00:24:16.173 --> 00:24:20.333

그래서 창문 좀 달아달라는 의도를  
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.

00:24:20.433 --> 00:24:28.345  
한마디로 1번과 2번은 다 뭐니까?

00:24:28.445 --> 00:24:30.697  
간접 발화.

00:24:30.797 --> 00:24:37.917  
이것도 간접 발화,  
2번도 간접 발화.

00:24:38.017 --> 00:24:41.815  
3번, 목적지까지  
가는 길을 모를 때.

00:24:41.915 --> 00:24:44.786  
구청에 가려면 어느  
쪽으로 가야 하나요?

00:24:44.886 --> 00:24:47.426  
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.

00:24:47.526 --> 00:24:51.961  
이거는 의문문인데, 목적지까지  
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

00:24:52.061 --> 00:24:57.129  
담화 상황을 참고해볼 때 이거는 길을 묻는  
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예요.

00:24:57.229 --> 00:25:00.555  
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고 길으로  
드러나는 표현도 의문문.

00:25:00.655 --> 00:25:03.184  
그러니까 3번 같은  
게 바로 뭐예요?

00:25:03.284 --> 00:25:08.229  
이게 바로 직접 발화에  
해당되는 거죠.

00:25:08.329 --> 00:25:10.812  
이게 직접이에요.

00:25:10.912 --> 00:25:15.452  
그러면 나머지 4, 5번도  
당연히 간접이 되겠죠.

00:25:15.552 --> 00:25:17.603  
3번이 정답이 됐으니까

00:25:17.703 --> 00:25:24.158  
나머지 4, 5번도  
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.

00:25:24.258 --> 00:25:26.446  
4번 보면 옷을 빌려달라는 동생에게

00:25:26.546 --> 00:25:28.256  
너 나한테 맡겨둔 옷 있니?

00:25:28.356 --> 00:25:33.071  
이것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 
의문형이지만

00:25:33.171 --> 00:25:35.110  
동생에게 대답을  
요구하는 게 아니죠.

00:25:35.210 --> 00:25:38.822  
옷을 빌려달라는 동생에게 나는  
너한테 옷 빌려주기 싫어.

00:25:38.922 --> 00:25:42.046  
이런 의도를 너 나한테  
맡겨둔 옷 있어?

00:25:42.146 --> 00:25:45.001  
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.

00:25:45.101 --> 00:25:47.914  
이거는 간접 발화예요.

00:25:48.014 --> 00:25:51.854  
5번,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 
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제자가

00:25:51.954 --> 00:25:55.537  
선생님,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.

00:25:55.637 --> 00:25:59.145  
이게 사실 옛날 문제죠,  
2014년도 문제인데

00:25:59.245 --> 00:26:03.568  
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 
위험한 선택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.

00:26:03.668 --> 00:26:06.871  
그런데 선생님, 여기  
따뜻한 차입니다.

00:26:06.971 --> 00:26:09.334  
그러니까 선생님께서  
그래 잘 마실게.

00:26:09.434 --> 00:26:16.257  
그런데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,  
라고 한 후 본인이 마셔버리면

00:26:16.357 --> 00:26:19.170  
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

00:26:19.270 --> 00:26:21.164  
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 
이야기한 건지.

00:26:21.264 --> 00:26:24.821  
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운 겨울에

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

00:26:24.921 --> 00:26:27.907  
발화 상황임을 고려해보았을 때.

00:26:28.007 --> 00:26:33.424  
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 
위해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점은

00:26:33.524 --> 00:26:35.104  
바로 뭐냐면,

00:26:35.204 --> 00:26:38.329  
이 발화의 걸음으로  
드러나는 표현적인 것보다

00:26:38.429 --> 00:26:41.904  
뭐를 봐야 된다? 구별의 포인트.

00:26:42.004 --> 00:26:46.320  
바로 상황.

00:26:46.420 --> 00:26:48.622  
이 상황 파악.

00:26:48.722 --> 00:26:51.986  
그래서 거기 괄호로 돼  
있는 부분 있죠?

00:26:52.086 --> 00:26:56.158  
그 부분을 잘 봐야만 풀 수 있어요.  
이해되지죠?

00:26:56.258 --> 00:27:02.111  
그래서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 
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다.

00:27:02.211 --> 00:27:04.728  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00:27:04.828 --> 00:27:08.356  
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발화,  
간접 발화 선택지 깔아놓고

00:27:08.456 --> 00:27:11.757  
이중에서 직접 발화를 골라 봐라.

00:27:11.857 --> 00:27:14.129  
혹은 간접 발화를 골라 봐라.

00:27:14.229 --> 00:27:16.416  
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 
나올 수 있으니까

00:27:16.516 --> 00:27:19.652  
잘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
00:27:19.752 --> 00:27:23.247  
그래서 답화는 어렵지는  
않지만 이해를 안 하고

00:27:23.347 --> 00:27:26.418

그냥 무조건 내가 가진 문법  
지식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.

00:27:26.518 --> 00:27:29.954

너무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고  
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.

00:27:30.054 --> 00:27:33.802

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 
잘 정리를 하고

00:27:33.902 --> 00:27:37.807

특히 여기 생각에 나와 있는  
제가 쓴 표현들 있죠?

00:27:37.907 --> 00:27:41.574

여기 예시문, 이런 것들을  
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00:27:41.674 --> 00:27:45.139

복습을 잘 해야 되는  
부분입니다, 특히 더.

00:27:45.239 --> 00:27:48.677

그러면 오늘 내용은  
여기까지 다 했고요.

00:27:48.777 --> 00:27:52.434

기출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 
뭐 해야 됩니까?

00:27:52.534 --> 00:27:54.312

퀴즈 풀어야죠.

00:27:54.412 --> 00:27:57.724
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27:57.824 --> 00:28:03.490

1번과 2번 문제를 우리  
친구들에게 제시해드립니다.

00:28:03.590 --> 00:28:06.198

1번 같은 경우는 상황  
맥락이라고 되어 있는데

00:28:06.298 --> 00:28:08.178

이거는 중학교 때  
배웠던 개념이라면서

00:28:08.278 --> 00:28:10.320

제가 이야기는 따로 안 드렸지만,

00:28:10.420 --> 00:28:17.470

상황 맥락이 어디에 있냐면 131쪽에  
단원 정리 부분에 있어요.

00:28:17.570 --> 00:28:21.260

상황 맥락이라는 거는 의사소통이  
이루어지는 구체적 시공간.

00:28:21.360 --> 00:28:24.157

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되어 있죠?

00:28:24.257 --> 00:28:26.486

의사소통에 관련한 사회 문화적 상황.

00:28:26.586 --> 00:28:30.433

이데올로기, 이런 것들이 131쪽 단원 정리에 나와 있습니다.

00:28:30.533 --> 00:28:33.944

그거 보시고 풀어보라는 의미로 제시를 한 거고요.

00:28:34.044 --> 00:28:37.579

2번은 지금 보자마자 바로 정답 나오나요, 안 나오나요?

00:28:37.679 --> 00:28:39.355

나와야 되는데.

00:28:39.455 --> 00:28:45.483

지금 쪽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2번 정답이 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.

00:28:45.583 --> 00:28:53.074

그래서 일단 O, X 퀴즈 정답 수강 후기에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8:53.174 --> 00:28:57.861

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어의 구조를 다 마쳤어요.

00:28:57.961 --> 00:29:03.222

벌써 책 전체 중에 이만큼 끝낸 거야.

00:29:03.322 --> 00:29:05.407

거의 절반 이상 넘어갔습니다.

00:29:05.507 --> 00:29:09.603

그래서 다음 시간에 국어의 규범을 들어갈 것인데요.

00:29:09.703 --> 00:29:13.017

다시 한 번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00:29:13.117 --> 00:29:15.668

지금 이 정도까지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

00:29:15.768 --> 00:29:18.037

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잊어먹기 쉽습니다.

00:29:18.137 --> 00:29:20.140

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

00:29:20.240 --> 00:29:23.105  
누적 복습 방식을 활용한다.

00:29:23.205 --> 00:29:25.585  
1단원 배웠다, 그러면  
2단원 배웠다면

00:29:25.685 --> 00:29:28.780  
3단원 배울 때쯤에는  
다시 1단원부터,

00:29:28.880 --> 00:29:31.313  
처음에 배웠던 것들부터  
하는 겁니다.

00:29:31.413 --> 00:29:32.938  
누적 복습.

00:29:33.038 --> 00:29:35.985  
1단원, 2단원,  
3단원을 배웠어요.

00:29:36.085 --> 00:29:39.262  
그러면 2단원 배울 때  
1단원 같이.

00:29:39.362 --> 00:29:43.900  
3단원 하면 1, 2, 3 같이  
이런 식으로.

00:29:44.000 --> 00:29:48.367  
누적 복습으로 따라와야만  
이게 정복이 됩니다.

00:29:48.467 --> 00:29:54.990  
왜냐하면 문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 
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

00:29:55.090 --> 00:29:57.546  
반복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수 없고

00:29:57.646 --> 00:30:01.880  
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 낯선  
대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.

00:30:01.980 --> 00:30:03.334  
이해 되시죠?

00:30:03.434 --> 00:30:10.503  
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그다음 시간  
국어의 규범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.

00:30:10.603 --> 00:30:14.764  
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서  
궁금한 점 있으면

00:30:14.864 --> 00:30:19.384  
늘 그렇게 해왔듯이 Q&A  
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30:19.484 --> 00:30:22.515

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  
시간 마치도록 할게요.

00:30:22.615 --> 00:30:27.326
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